백석대 육군 학군단

209 학군단
소식지 10월호



백석대학교 209
육군 학생 군사 교육단

“전진하라! 209학군단”
멈추지 않는 전진, 꺾이지 않는 호국정신




▲ 국내전사적지에서의 65, 66기 단체사진

백석대학교 학군단은 10월 2일, 국내 전사적지 탐방 6·25전쟁의 역사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6·25전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제1사단과 전진부대를 방문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6·25전쟁 당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섰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무를 수행했던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자유롭게 꿈꾸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름 없이 헌신하신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느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 전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사적지 탐방은 학군단 후보생으로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장차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장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훈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에 충성하는 장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경찰행정전공 65기 이종훈 후보생

“이번 국내 전사적지 탐방을 통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6·25전쟁의 아픔과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 후보생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정의 인연에서 육군의 사명으로”
선배의 경험을 나침반 삼아, 미래로 전진하라




▲ 44기 백석대 육군학군단 선배 장교의 강의를 듣는 65, 66기 단체사진

209학군단 후보생들은 10월 6일,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며 항공병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학교 선배 장교를 만나 군 생활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같은 학교에서 학업의 길을 걸었던 선배가 군 조직의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후보생들은 선배 장교의 군 생활 경험과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배 장교는 후보생들에게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조직에서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군사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장교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이번 만남은 후보생들에게 군인의 길에 필요한 준비와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 209학군단 후보생들은 선배 장교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과 훈련에 충실하고,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춘 장교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 스포츠경영전공 66기 정서은 후보생
“이번 선배 장교님와의 만남을 통해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라는 조언을 통해 맡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교육과 훈련에 성실히 임하며, 군사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꾸준히 쌓아 나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열어 준 성장의 길”
더 넓은 시야와 적극적인 도전으로




▲ 쿰캠프 교육 강의을 듣는 65, 66기 단체사진

학군단 쿰캠프 교육 활동은 10월 13일, 외부 강사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과 대외활동이 개인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학군단 교육과 훈련, 학업 등 주어진 일정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과 성장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대외활동은 단순히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도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경험은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교육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생활하고 성장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부딪치면서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자세를 갖추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복지학전공 66기 박지민 후보생
“이번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을 넘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후보생이 되고 나아가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실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는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리축전에서 만난 학군단”
조국을 향한 첫걸음, 학군단의 문을 두드리다





▲ 홍보 활동을 하는 66기 후보생들의 사진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진리축전 현장에서 육군학군단이 미래의 장교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 리더십을 갖춘 장교 양성의 가치를 알렸다. 이번 홍보는 학군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육군학군단의 교육 과정과 활동, 지원 자격 및 혜택 등을 소개함으로써 평소 학군단에 관심이 있었지만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학군단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는 시기에 장교라는 진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 생활의 자유와 배움 속에서도 규율과 절제를 실천하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육군학군단은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에게만 열려 있는 길이 아니다.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이라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하고, 동료와 함께 훈련하며,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과정은 자신을 돌아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진리축전에서 만나는 육군학군단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청춘의 패기를 책임감으로, 도전 정신을 리더십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학생들에게 장교의 길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육군학군단은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 스포츠경영전공 66기 김승현 후보생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육군학군단이 단순히 군사훈련을 받는 곳을 넘어 책임감과 리더십, 협동심, 강인한 정신력을 함양하며 미래의 장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평소 육군학군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육군학군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우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